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미츠이스미토모 등 3사 경영통합, 순조롭게 진행중

- 내년 4월 경영통합에 합의한 미츠이스미토모(三井住友)해상HD, IO손해보험, 닛세이도와(日生同和)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3사는 FY2009를 맞이하여 인력교류 및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나섬.
- 미츠이스미토모해상HD는 통합 파트너인 IO손보와 닛세이도와손보의 교육연수 지도총괄 담당자를 최근 사내연수 과정에 초청해 보험상품 교육 노하우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있음.
 - 특히, 보험심사와 직결되어 외부 공개를 극히 제한하고 있던 보험금 지불교육 총괄 인스트럭터의 지도 매뉴얼을 이들 회사들에 공개하는 파격을 보여줌으로써 미츠이스미토모해상HD의 경영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.
- 과거 2001~2004년에 걸쳐 손보업계가 대규모 재편될 때 회사간 지나친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던 손해보험 3사는 현장 의사소통 및 인원 교류에 중점을 두고 통합을 진행하기로 합의함.
- 손해보험사 통합은 시스템 단일화에 따른 보험계약, 보험금 지불 등의 사무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통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경영통합의 성공이 불투명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임.
 - 따라서 미츠이스미토모해상HD는 통합성공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 ① 경영 판단 과정 ② ‘통합추진실’이 주도하는 조정 과정 ③ 현장에서의 해결 과정 등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되, 특히 현장 문제들을 선결하는 데 회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함.
 - 한편, 내년 같은 시기에 통합이 예정된 손해보험재팬과 니혼코아(日本興亜)손해보험은 완전 합병이 아닌 기존 회사는 유지하기로 한 통합이기 때문에 비교적 통합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, 두 회사의 대주주인 미국 투자회사 사우스이스탄불에셋매니지먼트가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향후 통합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됨.

(후지산케이 비즈니스아이 4/3)